

다뉴브강 추모 물결 속 오늘 수중 수색

잠수 안되면 6일 인양 나설듯 외교부차관, 유가족 의견 청취 여행사와 협조 장례 절차 진행



유람선 침몰 사고가 발생지나흘째인 1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머르기티 다리 아래 정박한 보트에서 한국-헝가리 수색팀이 수중으로 투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실종자 수색 등 사고수습에 나선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의 실종자 수색에 나선 정부 신속대응팀은 먼저 잠수를 시도하되 어렵다면 이르면 6일 인양에 나설 것이라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헝가리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송순근 국방부관은 이날 "침몰 유람선 수중 수색을 3일 시도할 것"이라며 "잠수 수색 작업이 실패한다면 이르면 목요일에, 늦으면 일주일 정도 기다려 인양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헝가리 구조·수색대는 잠수 조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우선 인양을 주장했으나, 한국 측이 이에 반대해 먼저 수중 수색을 시도하기로 했다고 송 부관은 설명했다.

사고와 관련한 법적 지원을 위해, 인근 국가 대사관에 파견 중이던 검사들도 현지에서 긴급 투입됐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주오스트리아 대사관에 파견 근무 중이던 조주연(47·사법연수원 33기) 부부장검사와 주독일 대사관에 파견 중인 황성민(44·35기) 부부장검사가 헝가리로 급파됐다. 이들은 추돌 사고를 낸 크루즈 선박 바이킹 시킨 선장에 대한 사법처리 등과 관련해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법률 지원 업무도 맡고 있다.

사고 현장에는 구조 작업의 진전과 희생자를 애도하는 우리 교포 및 헝가리 부다페스트 시민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현장 주변에는 희생자를 애도하고 실종자 수색의 진전을 기원하는 꽃과 촛불, 편지들도 계속 놓였다. 추모에 동참하는 시민이 많아지면서 조화와 촛불 등이 놓인 장소도 머르기티 다리 아래와 위를 넘어서 사고지점 인근 강둑을 따라 길게 퍼져나가는 모습이다.

꺼진 양초들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던

존 크레카치(41) 씨는 2일(현지시간) "작은 선박 하나를 몰고 있는데, 사고현장은 다뉴브강에서도 내가 가장 좋아하던 장소였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며 "한국에서 몇 년 전 배가 침몰해 학생들이 많이 숨졌다고 들었는데 더욱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다리 위에서 조경을 하던 시민들은 난간에 놓인 꽃을 보고는 그대로 멈춰서 한동안 망하니 조화와 강물을 바라보기도 했다. 부다페스트에서는 전날 오전부터 머르기티 다리 위 가로등에 추모의 의미로

검은 깃발을 내걸었다. 필러이는 깃발들은 강 아래로 시민들의 애라는 마음을 실어 나르는 듯했다. 사고 피해자의 한국인 지인이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도 있었다. 머르기티 다리 아래에 놓인 편지지에는 '언니한테 늘 반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 돌려줘서 미안해요', '얼른 따뜻한 우리 품속으로 와요. 무사하란 돌아와 주세요'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 의견을 잘 청취하고 여행사와 협조해서 장례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양 백운산 학술림, 서울대에 무상양도 없다"

기재부, 요구 거부... 국립공원 추진도 숨 고르기

서울대의 광양 백운산 학술림에 대한 무상양도 요구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불가 방침을 밝혀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2일 광양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무조정실 주재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관련 관계기관 실무자 2차 회의에서 "국유재산의 무상양도는 최소 면적으로 국한하며 무상양도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는 남부학술림 1만966ha 가운데 육룡면 동곡리 한재 지역과 육룡면 추산리 추산지역 등 935ha를 무상으로 양도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서울대는 지난 2010년 10월 제정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 설립 이전에 서울대 관리 재산과 연구용 재산, 교육용 재산 등을 서울대법인에 무상 양도하도록 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광양시는 한재 지역에 있는 443ha의 무상 양여는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다만, 추산시험장 일대 260ha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는 또 양보 조건으로 국유재산인 백운산 휴양림 일원 190ha의 무상양도를 요구해왔다.

기재부는 그러나 서울대와 광양시의 요구를 모두 거부해 백운산 학술림의 무상양도 논란은 일단락됐다.

서울대의 무상양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광양시가 서울대로부터 백운산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했던 국립공원 지정 문제도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11면>

광양시는 이에따라 백운산과 인접한 구례군과 협의를 거쳐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한 등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장기적인 과제로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국가 재산은 개인이나 법인에 무상으로 줄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게 됐다"며 "국립공원 지정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어획 급감 '참조기' ... 양식치어로 되살린다

전남해양수산기술원, 치어 분양 보급사업 본격 추진

급감한 참조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양식 치어(어린 물고기) 보급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남도해양수산기술원은 참조기 수정란 생산·보급을 통해 종자 생산업체에서 성장한 치어를 양식 희망 어가에 분양중이라고 2일 밝혔다.

참조기는 선호도가 높아 경제성이 높은 어종으로 양식 수요도 늘고 있지만 생산량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한때 5만9226t(2011년)에 달했던 참조기 생산량은 계속 줄면서 지난해에는 2만3274t으로 감소했다.

어획량 감소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치어 남획 탓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수산기술원은 참조기 양식 치어 대량 보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영광지역에 서해특산시험장을 운영하면서 참조기 양식 산업화 사업을 추진 중

이다.

참조기 양식기술 개발은 2005년 최초 종자 생산 성공을 시작으로 관련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한 결과, 지난 3월 참조기 수정란 3만7000cc를 생산해 영광과 함평에 위치한 도내 종자 생산 업체 5곳에 보급했고 최근에는 양식 치어의 단란 생산(6~8개월) 기술 개발도 가능해지면서 어업 현장 보급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해양수산기술원 관계자는 "대량 종자 생산 기술을 확보해 참조기 양식 산업화가 이뤄지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내년 공휴일 67일

올해보다 1일 늘어... 추석 5일

내년 실제 공휴일 수는 올해보다 하루 많은 총 67일로 정해졌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0년도(단기 4353년) 월력요청에 따르면 내년에는 52일의 일요일과 15일의 관공서 공휴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4월 15일), 설날 대체공휴일(1월 27일) 등 총 69일의 공휴일이 있다. 이중 설 연휴 마지막 날(1월 26일)과 3·1절이 일요일과 겹쳐 실제 공휴일 수는 67일이 된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간의 경우 52일의 토요일을 더하면 휴일은 119일이 된다. 다만 공휴일 중 설날(1월 25일)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토요일이어서 실제 휴일 수는 115일이다. 내년 가장 긴 연휴는 추석으로 9월 30일부터 10월 2일 연휴에 개천절(10월 3일)과 10월 4일 일요일이 연결돼 총 5일을 쉴 수 있다. 설 연휴는 대체공휴일까지 포함해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총 4일이다. /연합뉴스

광주시, AI 특허 기술 선점 '청신호'

이용섭 시장, 김문주 박사에 협력 요청 "적극 돕겠다"

세계 핵심특허 기술 다량 보유... 기술고문 위촉 계획

광주시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중인 '인공지능(AI)' 관련 특허 기술 선점에 나서며 등 AI 산업 기틀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광주의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AI 전문가 찾기' 등 광주시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광주시는 세계적인 AI 관련 핵심 특허 20여개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AI 전문가인 김문주 박사와 4일째 기술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계적인 AI 특허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김박사의 AI 관련 특허 기술을 활용해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등 광주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31일 김박사의 귀국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긴급하게 만나 4차 산업혁명도시 광주의 기반이 될 AI사업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박사는 "광주시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고, 4일 이 시장을 다시 만나 향후 인공지능 알고리즘 및 AI설계, 핵심기술 이전 사업, 산업융합 분야와 AI 활용 콘텐츠 개발 등 광주의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전 세계 AI 전문가로

꼽히는 김 박사를 광주시 기술고문 등으로 위촉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면담을 갖는 등 수 차례 공을 들여왔다. 서울과 대전, 대구 등 AI 관련 산업에 나르고 있는 지자체들도 김 박사를 모시기 위해 경쟁을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박사는 IBM사 미래기술과 시스템 연구개발 총괄책임자로 28년 간 근무했으며, 현재는 실리콘 밸리 벤처캐피탈 컨설턴트를 지내고 있다.

김 박사는 차세대 시스템 기술개발과 대형 및 슈퍼컴퓨터 개발, 그리드 컴퓨팅, 지능형 센서를 이용한 마이크로컴퓨터, 인공지능 하이브리드 멀티 코어 반도체 개발 등 IBM 발명왕 '마스터 인벤터'(Master Inventor)로서 관련 핵심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LG, LS 등의 기술운영 자문 등을 맡기도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임야

-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 인접 맹지도 15만~20만원씩매매
-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 남구, 덕남동 산, 도로접함
- ▶ 992㎡(300P), 지분 매매
- ▶ 기획 부동산 물건 아님
- ▶ 도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 ▶ H.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2019학년도 후기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미래 산업발전을 견인해 나갈 고급 인재 양성!

인간과정 운영 (주1-2회, PM 7시~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 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논문문제 시행)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신학인 연구네트워크 구축
- 융·복합 시대에 걸맞은 알찬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자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구분	일정	비고
입학원서 접수(인터넷 작성)	2019.06.03(월) ~ 06.19(수)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구비서류 제출(우편 및 방문접수)	2019.06.03(월) ~ 06.20(목)	공과대학 4호관 2층 산업대학원 행정실
전형일시	2019.07.03(수) 09:00~	학과(전공) 지정 장소
합격자 발표	2019.07.19(금) 11:00 예정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모집학과(전공)
건축공학과/기계공학과/산업공학과/재료공학과/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토목공학과/화학공학과/환경에너지공학과/식품-의식산업학과/지역환경자원공학과/친환경농업학과 * 학과별 전공은 모집요강(안) 참고(산업대학원 홈페이지)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 전화 062-530-1607 ·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풍수와 사주(명리)를 한번에~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관계인 풍수와 사주,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19. 7. 2(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신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 수강료 : 풍수 + 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 일 시 : 2019. 6. 25(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과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어르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저축이 된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봉사자 모집

- 돌봄봉사자 자격 : 만13세이상, 2인 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필수(교육시간도 포인트 혜택)
- 돌봄봉사자 혜택
 -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용(적립 및 사용)
 - 돌봄활동 시간 VMS 연계 적립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의무기부 20%
 -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돌봄활동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 수시 모집

돌봄대상자는?

-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전문가가 돌봄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이거나, 만 40세 이후 본인이 적립한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포인트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어르신
- 돌봄서비스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동구노인종합복지관 www.noin.or.kr
☎ 062-232-4953

1688-3579 (전국 50개 시군구소재)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